

“인건비에 고용 포기...몸 부서져도 혼자 장사해야죠”

최저임금 인상에 시름 깊은 자영업자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힘든데 앞친데 났친 격”이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1만원’의 문턱을 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와 연이은 고물가로 이미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급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나홀로 자영업’을 하며 버텼는데, 엔데믹이 와도 직원 한 명 못 뽑을 처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3년째 직원 한 명도 없이 홀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강혁(43)씨는 “올해도 직원 고용하기는 글렀다”고 탄탄했다.

이씨는 2020년까지는 주간과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하자 결국 직원들을

1만원 안넘었지만 체감도 높아...알바 시급 1만2천원에 겨우 구해 24시간 편의점·카페 등 나홀로 영업...노동계 “최저생활 보장 안돼”

모두 내보냈다. 계산대에서 잠을 청하며 무리하게 24시간 영업을 계속하던 이씨는 3개월 만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24시간 편의점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씨는 “수입을 늘리려면 직원을 고용해 운영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직원 한 명을 뽑으려면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4대 보험금 등 부가적인 지출까지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며 “한 톨이라도 아껴야 먹고 살 수 있는 판국에 최저임금을 더 올린 것은 업주에게는 그냥 고용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곡성군 곡성읍에서 지난해 카페를 개업한 정어진(29)씨도 올해 ‘나홀로 운영’을 결심했다.

정씨는 최근 엔데믹 덕분에 점심시간에 대기줄이 늘어설 만큼 손님이 늘자 ‘피크 타임’ 3시간 동안만 일할 직원을 고용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자 중단

기 알바를 고용하는 것마저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됐다. 정씨는 “쉬는 날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혼자 카페를 운영하려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지만, 이미 커피원두, 유제품 등 원자재 값이 올라 적자가 쌓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깃집처럼 홀·서빙·주방·설거지 등 직원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벌써부터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겸업’을 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김정훈(57)씨는 “나주시 송월동에서 1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지출을 계산해보면 ‘헛’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안그래도 월세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실정인데, 내년에 인건비가 더 오른다니 막막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내년부터 직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 중 3명은 가장 바쁜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고용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아끼기로 했다. 대신 김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1시 30분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빈 자리를 채우겠다는 각오다.

김씨는 “힘들긴 하지만 고물가로 재룻값 등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인건비라도 아껴야 한다”며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적자는 면해야 하지 않겠냐”고 쓴웃음을 지었다.

반면 최저임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탓에 이미 올해 초부터 ‘최저시급 1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4년째 옷가게를 하는 이시영(여·38)씨는 최근 매장 직원 한 명을 채용하려다 구인이 안 돼 한 달 동안 진땀을 뺐다. 최저임금으로는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옷돈에 옷돈을 얹은 끝에 결국 시급 1만 2000원에 직원 한 명을 겨우 채용했다.

이씨는 “고물가 때문인지 최저임금에 맞춰 일을 하려는 직원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며 “지금도 이런데 임금 인상이 결정된 내년은 직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편 노동계는 자영업자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9860원으로는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올라야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인데 언제부터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임금이 됐다”며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대표 누각 ‘희경루’ 복원 1451년 건립돼 1899년 소실되기 전까지 광주를 대표하는 누각으로 손꼽혔던 희경루가 24일 복원 공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모습을 드러냈다. 희경루는 1430년 광주목이 무진군으로 강등됐다가 21년만에 복원된 것을 기념해 세워진 누각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일원 광산경찰서장 취임 “국민 신뢰 얻겠다”

곡성 출신 강일원(57·사진) 경무관이 신임 광주광산경찰서장에 취임했다.

광주광산경찰은 24일 오후 광산경찰서 2층 여 등홀에서 신임 강 서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강 서장은 취임사에서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심동체로 국민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한 치의 착오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서장은 광주 대동고와 한세대 법무·경영대학원(경찰학 석사)을 졸업하고 1989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2017년 총경으로 승진한 이후 전남청 수사과장, 화순경찰서장, 고양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1월에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반기수 전 광주광산경찰서장이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난데 따른 것이다.

반 전 서장의 인사조치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광주광산경찰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무위반 사건으로 인한 광주경찰청의 집중감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권 보호·학생인권 조례 보완 검토

이정선 교육감 “교권 강화 추진”

광주교육청이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2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권한만 강조돼 있는 조항에 책무를 강화하고 교권보호 조항은 교사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권이 바로 서면 학생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며 “권한에 따른 책무성을 보완해 조례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의회, 교육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11년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경찰, 집중호우 피해 예방 총력 대응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광주경찰청이 재난 비상 ‘갑호’를 발령하고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경찰청은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23일 밤 11시 20분 광주경찰청장 주재 집중호우 대비 지휘부 회의를 개최해 광주지역 침수취약지 총 154곳에 596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갑호비상은 관련 가능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황관리관 격상 및 상황실 확대 운영(인력 증원), 경찰관기동대·경찰서별 예비대 편성으로 현장 투입 인력 추가 확보 등도 결정했다.

특히 광산구 평동 장목교 인근 하천 수위가 높다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고, 1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주민 158명을 임시숙소로 대피시켰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최대의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광주에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